



“기업 IT투자 ROI 중심으로 이전됐다”

올해 세계 IT시장은 계속된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여전히 어려움을 벗어나지 못했다. 다만 IT업체들의 평균 실적이 지난해에 비해서는 호전되고 있다는 점이 다행이라면 다행이었다. 최근 한국쓰리콤의 최호원 지사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계 네트워크 시장이 10여 가지의 경향들을 중심으로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최 지사장의 평가를 통해 2002년 네트워크 시장의 흐름을 살펴본다.

취재 신중훈 기자



“올해 기업들의 IT투자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의 영향을 받아 ROI(투자수익률)을 중심으로 추진됐다는 점이 가장 큰 핵심이었습니다. 이는 IT업계 전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 기술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원 지사장은 올해 네트워크 시장이 침체 국면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가운데 고객들의 ROI 중심 투자전략으로 인해 더욱 까다로운 시장환경을 맞이했다고 평가했다. 또 이에 따라 전체 IT산업이 일정 부분 후퇴한 측면도 있으나 앞으로 이러한 환경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작된 가격경쟁은 올해 내내 네트워크 업계의 수익성을 악화시켰고 내년에도 장비 가격의 하락 속도는 한층 가속화될 것이라고 그는 내다봤다.

최 지사장은 “지난 2~3년 전 한참 IT산업이 발전할 당시만 해도 기업들은 네트워크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지만 이제 그런 환경은 다시 조성되기 힘들 것”이라며 “새로운 형태의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하고 네트워크 서비스 연결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능기능이 추가된 것 역시 환경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부터 시작된 보안 부문에 대한 사용자 요구의 증가로 인해 올해는 외부 및 내부 보안 부문에 대한 강화가 본격화됐다고 설명하고, 특히 최근에는 내부 보안 문제가 심각한 화두로 떠올랐다고 말했다. 최 지사장은 “기업들은 여전히 현재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단일화된 접근 쪽으로의 보안 향상을 바라고 있다”며 “다음 단계는 통합된 관리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내년 하반기 무선랜 시대 본격화 될 것

올해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무선랜 부문에 대해서 최 지사장은 올해는 802.11b와 802.11a가 공존했으나 내년부터는 많은 기업들이 높은 주파수와 밀도를 가진 802.11a 솔루션을 채택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그는 “802.11a 무선랜의 채택이 지난해 하반기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나타났다”며 “내년 이후에는 802.11a를 뛰어넘어 802.11g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이며 이때부터 본격적인 무선랜 시대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네트워크 업계에서 또 하나의 이슈로 등장했던 기가비트이더넷에 대해서는 올해가 분기점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기가비트이더넷과 10기가비트이더넷을 콤비네이션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시작했고, 2003년과 2004년을 거쳐 시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그는 말했다. 한편, 최호원 지사장은 올해 한국쓰리콤의 성적표에 대해 스위치 부문에서는 만족할만한 성과를 올렸지만 무선랜 부문에서는 기업시장에서의 확산 속도가 기대만큼 빠르지 않아 90% 이상의 프로젝트를 내년으로 이전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유통시장에 대해 수요와 공급이 조정되는 단계로 보고 있다며 앞으로는 브랜드파워를 앞세워 유통시장에 대한 공략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